간호과학논집 제18권 1호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18 No. 1, December, 2013, pp.71~87

일부 지역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과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조 삼 순* · 홍 미 순**

Emotional-Behavior Problems and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n Urban Area

Cho, Sam Soon · Hong, Mi Soon**

** Major in Nurs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Gwangju*

>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behavior problems and resilience among high-grade elementary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03(boys 164, girls 139) 5th, and 6th grad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y Korea-Youth self-Report(K-YSR) questionnaire for emotional-behavior problem(68 items) and Jung's self-Report questionnaire for resilience(19 item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SPSS 18.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of emotional-behavior problems was 20.7 out of 136. The mean score of resilience was 57.4 out of 76. The following resilience were orderly showed high score self-efficacy, problem-resolve, relationship. The interrelation between emotional-behavior problem and resilience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motional-behavior problem and resilience for gender, grade, problems arising from computer use, and economical level. Significant difference in

교신저자 : 홍미순,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60,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501-746), 전화: 062-530-4949, 팩스: 062-227-4009, E-mail: mshong1212@hanmail.net

emotional-behavior problem and resilience were found for family related characteristics of relationship with father, mother, and sibling, communication with family, and feeling of togetherness among family. And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school related characteristics with level of school performance, satisfaction in school life, relationship with peer, and the number of good friend.

Conclusion: The more resilient students showed fewer emotional-behavior problem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ir emotional-behavior problems through resilience program which is suitable for personal developmental stage and to improve their ability to control the problems.

Key words : emotional-behavior problem, resilience, elementary school student.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물질주의가 팽배되고, 도덕적 규범의 상실로 생활사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우울, 자살 및 비행, 공격 등의 사회적 부적응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 가출실태를 조사(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산학협력단, 2010)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4, 5, 6학년의 22%가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동아일보, 2006).

이러한 정서·행동문제가 이미 표면화되는 시점에서는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Shin, Shin, Kim & Cho, 2010), 최근에 표출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Park, 2009),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지속되고 있는 경향이다(Beak & Hwang, 2006; Shin, et al., 2010).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심한 혼란과 스트레스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Shin & Khu, 2001), 학교생활에서 부딪히는 과도한 성취 압력, 맹목적인 부모의 기대와 요구 등으로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보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 하고 있다(Wie, 2004).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부적응 문제를 미리 예방하거나 적절히 관리 하지 않으면 성인기까지 심각한 정신장애가 지속될 수 있어 어느 연령층 보다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Kim, Lee & Chio, 2004; Hwang, 2006). 하지만 이러한 정서·행동문제도 생활 사건에 직면했을 때 위협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무엇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적응유연성이 높은 아동은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Hwang & Kim, 2001). 이와 같이 적응유연성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으로 발달상의 불리함과 역경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적응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Park, 2009).

지금까지 정서·행동 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저소득 가정의 아동 및 정신건강 문제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정도 및 생활만족도 관련 조사(Shin. 2008, Lee, Kim, Choi,& Kweon, 2009)나, 유아 및 초등학생 부모들과 중학생 대상 설문을 토대로 정신건강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초등학생 본인의 자기보고식 조사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들도 주로 반사회적 행동(Yoo, 2002), 가정폭력(Lee, 2006) 및 학교폭력(Sung & Chung, 2007), 빈곤(Kim & Oh, 2006), 음주 가정 및 학대경험(Kim, 2003)과 같이 특정 상황에서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 국한되어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의 정도를 파악하여 정서 및 행동상의 부적응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 및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중재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족 및 학교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나. 대상자의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 정도를 파악한다.
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족 및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라. 대상자의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S시에 있는 1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아동 중 자가 질문지를 이해하고 답변 능력이 있는 3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정서·행동문제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1991)가 제작한 Youth Self- Report를 보완하여 Oh(2007)가 개발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사회능력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축행동,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 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자해/정체감의 9가지 하위 영역 총 119문항으로 구성된 3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행동문제가 더 심각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값이 .63에서 .85까지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46이었다. 영역별로는 외현화 문제 .893, 내재화 문제 .901, 주의집중 .726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공격행동 .872, 비행 .698, 신체증상 .670, 불안/우울 .888, 위축행동 .713, 주의집중 .726 이었다.

2) 적응유연성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정인숙(2007)이 제작한 도구로서 자기효능감 7문항, 대인관계 기술 6문항, 문제해결력 6문항 등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19점에서 7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1 이었고, 영역별로는 자기효능감 .865, 대인관계기술 .837, 문제해결력 .820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S시 1개 초등학교 5,6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방법은 본 연구자가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한 후 학생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기호화하여 컴퓨터에 입력한 후 SPSS PC$^+$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 및 학교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정서·행동문제 점수와 적응유연성에 대한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가족 및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Scheffé test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또한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54.1%로 여학생 45.9%보다 많았고,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가 48.2%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 32.7%, 그렇다15.8%, 매우 그렇다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59.0%로 가장 많았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군도 37.7%를 나타냈다(Table 1).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N=303)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164	54.1
	emale	139	45.9
grade	5th grade	143	47.2
	6th grade	160	52.8
problem arising from computer use	very agree	10	3.3
	agree	48	15.8
	not agree	99	32.7
	not very agree	146	48.2
economical level	upper	113	37.7
	middle	177	59.0
	lower	10	3.3

2) 가족 관련 특성

형제 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43.6%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92.1%가 부모님 두 분 모두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나머지 7.9%는 편부모나 조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였다. 부모님은 91.1%가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8.9%는 이혼이나 사별, 동거인 경우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각각 57.8%, 72.4%로 가장 많았고, 형제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3.5%로 가장 많았다. 가족 간의 대화는 자주 하는 편인 경우가 56.4%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매우 편하게 느낀다고 한 경우가 61.4%로 가장 많았다(Table 2).

3) 학교관련 특성

자신이 생각하는 학업성적 수준은 중간이다

<Table 2> Family Related Characteristics in Ele- mentary School Children

Variables	Categories	n	%
order of sibling	only child	43	14.2
	1st	132	43.6
	2nd	29	9.6
	3rd or more	99	32.6
living with family	parents	279	92.1
	others	24	7.9
marriage of parents	married	276	91.1
	divorced, others	27	8.9
relationship with father*	very good	170	57.8
	good	109	37.1
	difficult	15	5.1
relationship with	very good	218	72.4
mother*	good	75	24.9
	difficult	8	2.7
relationship with sibling*	very good	109	39.2
	good	121	43.5
	difficult	48	17.3
communication with	very good	171	56.4
family*	ordinary	116	38.3
	difficult	16	5.3
feeling of togetherness	very comfortable	185	61.4
among family*	comfortable	98	32.6
	not comfortable	18	6.0

* 무응답 제외

가 66.3%로 가장 많았고, 학교생활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0.0%, 또래관계에서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하고 아껴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5.5%로 가장 많았으며, 친한 친구는 4명 이상인 경우가 57.1%로 가장 많았으나 한명도 없다고 한 경우도 7.0%로 나타났다(Table 3).

2. 대상자의 정서 · 행동문제

초등학생의 정서 · 행동문제 정도는 136점 만점에 평균 20.67(± 15.70)점이었으며, 평점평균은 0.31(± 0.23)점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주의집중 0.4점, 외현화 문제 0.3점, 내재화 0.3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소별로는 외현화 문제 영역에서 공격행동 0.4점, 비행 0.2점, 내재화 문제 영역에서는 위축행동 0.4점, 불안/우울 0.3점, 신체증상 0.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School Related Characteristic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N=303)

Variables	Categories	n	(%)
level of school performance	high	65	21.5
	middle	201	66.3
	low	37	12.2
satisfaction in school life*	very good	109	36.3
	good	150	50.0
	not good	26	8.7
	not very good	15	5.0
relationship with peer	very good	83	27.8
	good	166	55.5
	not good	41	13.7
	not very good	9	3.0
number of good friend*	none	21	7.0
	1	20	6.6
	2	47	15.6
	3	41	13.7
	4 or more	170	57.1

* 무응답 제외

<Table 4>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subjects (N=303)

Variables	Mean±SD	Mean/Item
Total	20.7±15.70	0.3±0.23
Attention problem	3.7± 2.90	0.4±0.32
External problem	9.3± 7.07	0.3±0.24
aggressive behavior	7.5± 5.63	0.4±0.30
delinquent behavior	1.9± 1.93	0.2±0.19
Internal problem	8.2± 7.58	0.3±0.25
withdrawn	2.5± 2.34	0.4±0.33
anxiety/depression	4.7± 5.03	0.3±0.34
smatic complaints	1.2± 1.71	0.1±0.17

3. 대상자의 적응유연성

초등학생의 적응유연성 정도는 76점 만점에 평균 57.4(± 10.39점)이었으며, 평점평균은 4점 만점에 3.0(± 0.55)점이었다. 영역별로는 자기효능감 3.1점, 문제해결력 3.0점, 대인관계기술 3.0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Resilience in Subject (N=303)

Variables	Mean± SD	Mean/Item
Total score	57.4± 10.39	3.0± 0.55
Self efficacy	21.6± 4.30	3.1± 0.61
Solving problem ability	18.1± 3.89	3.0± 0.65
Interpersonal relationship	17.7± 3.75	3.0± 0.62

대상자의 적응유연성 정도를 그룹별로 비교하기 위해 적응유연성 점수분포에 따라 세 개의 동일크기 집단으로 나누는 절단점의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 정도가 하위 1/3 절단점 이하인 군을 '하위군'으로, 상위 1/3 절단점 이상의 군을 '상위군'으로, 그리고 이 두 군 사이의 나머지 군을 '중위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상위군은 105명(34.8%), 중위군은 100명(33.1%), 하위군은 98명(32.1%)이었으며, 상위군의 적응유연성 정도는 3.6(±0.22)점, 중위군은 3.0 (±0.12)점, 하위군은 2.4(±0.34)점으로 나타났다(Table 6).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 정도의 차이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는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생활문제(F=6.16, p=.001)와 경제 수준(F=10.10,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과,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생활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군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이 매우 그렇지 않다는 군에 비해, 경제수준은 보통이거나 못 산다고 생각하는 군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군에 비해, 그리

<Table 6> Group by Resilience Score (N=303)

Group	n(%)	Score	Mean±SD	Mean/Item
High	105(34.8)	62.0 - 76.0	68.2 ± 4.26	3.6 ± 0.22
Medium	100(33.1)	54.0 - 61.0	57.6 ± 2.30	3.0 ± 0.12
Low	98(32.1)	0.00 - 53.0	45.5 ± 6.50	2.4 ± 0.34

<Table 7> Total Mean Scores of the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and Resilience by individual related Characteristics (N=303)

Variables	Categories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Resilience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20.0±16.34	-0.82	.415	56.1±11.25	-2.45	**.013***
	female	21.5±14.91			59.0± 9.07		
grade	5th grade	20.6±16.96	-0.11	.909	59.0±10.77	2.47	**.014**
	6th grade	20.8±14.55			56.0± 9.86		
problem arising from computer use*	very agree[a]	29.2±33.60	6.16	**.001**	48.3±10.86	5.26	**.002**
	agree[b]	24.6±17.05		**d<b,c**	56.1±10.58		**d>a**
	not agree	23.6±14.40			56.1± 9.39		
	not very agree	16.8±13.23			59.4±10.50		
economical level*	upper[a]	16.5±12.50	10.10	**<.001**	59.6±11.22	4.32	**.014**
	middle[b]	22.3±16.57		**a<b,c**	56.3± 9.72		**a>c**
	lower[c]	36.8±12.39		**b<c**	53.0±10.09		

* 무응답 제외

고 못 산다고 생각하는 군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군에 비해 정서·행동문제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초등학생의 적응유연성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성별(t=-2.45, *p*=.013), 학년(t=2.47, *p*=.014),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생활문제 (F=5.26, *p*=.002)와 경제수준(F=4.32, *p*=.0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5학년이 6학년에 비해 적응유연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생활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이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는 군보다 적응유연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대상자가 지각하는 경제수준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군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군보다 적응유연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7).

2) 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는 아버지와 관계(F=7.38, *p*=.001),어머니와 관계(F=8.03, *p*<.001),형제와의 관계(F=10.19, *p*<.001), 가족간의 대화 정도(F=5.07, *p*=.007),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느낌(F=22.8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군이 매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군에 비해, 어머니와 관계는 좋은 편,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Table 8> Total Mean Scores of the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and Resilience by family related Characteristics (N=303)

Variables	Categories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Resilience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order of sibling	only child[a]	22.1±17.17	0.84	.473	57.2±10.68	0.61	.608
	1th[b]	21.2±16.09			56.9±10.16		
	2nd[c]	22.9±15.97			56.5±11.21		
	3rd or more[d]	18.7±14.43			58.6±10.38		
living with family	parents	20.3±15.47	-1.26	.210	57.7±10.26	1.63	.104
	Other	24.6±18.13			54.3±11.41		
marrital status of parent	married	20.3±15.52	-1.44	.151	57.5±10.37	0.58	.560
	Other	24.9±17.16			56.2±10.72		
relationship with father*	very good[a]	17.5±13.71	7.38	**.001**	60.1±10.20	15.68	**<.001**
	good[b]	24.1±16.64		**a<b**	54.7± 9.22		**a>b,c**
	difficult[c]	27.2±18.12			48.7±10.91		
relationship with mother*	very good[a]	18.6±14.95	8.03	**<.001**	59.6± 9.59	20.56	**<.001**
	good[b]	25.0±15.76		**a<b,c**	52.5±10.41		**a>b,c**
	difficult[c]	35.7±21.94			45.6± 8.78		
relationship with sibling*	very good[a]	17.3±13.26	10.19	**<.001**	59.6±11.16	5.23	**.006**
	good[b]	20.2±14.76		**a,b<c**	57.0±10.09		**a>c**
	difficult[c]	29.4±19.71			54.0± 8.67		
communication with family*	very often[a]	18.4±15.15	5.07	**.007**	60.2±10.01	18.08	**<.001**
	ordinary[b]	22.8±16.26		**a<c**	54.7± 9.54		**a>b,c**
	difficult[c]	29.2±12.91			48.4±10.23		
feeling of togetherness among family*	very comfort[a]	16.9±13.36	22.82	**<.001**	60.3± 9.64	22.40	**<.001**
	comfort[b]	24.4±13.99		**a<b,c**	53.7± 9.79		**a>b,c**
	discomfort[c]	39.4±26.42		**b<c**	48.8±10.28		

* 무응답 제외

군이 매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군보다 정서・행동문제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형제와의 관계는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군이 좋은 편, 매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군보다 정서・행동문제가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과 대화를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군이 자주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군보다 정서・행동문제가 유의하게 높았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느낌이 편하다,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군이 매우 편하다고 생각하는 군보다, 그리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군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군보다 정서・행동문제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초등학생의 적응유연성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가족관련 특성에서도 아버지와 관계(F=15.68, p<.001), 어머니와 관계(F=20.56, p<.001), 형제와의 관계(F=5.23, p=.006), 가족

간의 대화 정도(F=18.08, p<.001),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느낌(F=22.40,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군이 좋은 편,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군보다, 형제와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군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군보다 적응유연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군이 보통,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군보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느낌이 매우 편하다고 생각하는 군이 편하다,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군보다 적응유연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8).

3)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는 학업성적 수준(F=3.39, p=.035), 학교생활에 대한 즐거움 정도(F=10.50, p<.001), 또래와의 관계(F=9.1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이 즐겁다, 즐겁지 않다, 매우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이 매우 즐겁다고 생각하는 군에 비해 정서·행동문제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또래관계에서 친구가 나를 잘 이해하고 아껴주는가 하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이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는 군에 비해,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이 그렇다 라고 생

<Table 9> Total Mean Scores of the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and Resilience by School Related Characteristics (N=303)

Variables	Categories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Resilience		
		Mean±SD	F	p	Mean±SD	F	p
level of school performance	high[a]	16.6±16.76	3.39	**.035**	63.4± 8.83	24.93	**<.001**
	medium[b]	21.3±15.24			56.9± 9.18		**a>b,c**
	low[c]	24.6±15.07			49.5±13.08		**b>c**
satisfaction in school life*	very good[a]	15.7±12.73	10.50	**<.001**	62.5± 9.44	21.08	**<.001**
	good[b]	21.8±14.76		**a<b,c,d**	56.1± 9.10		**a>b,c,d**
	bad[c]	29.4±15.07			49.3± 9.40		**b>c**
	very bad[d]	35.0±28.43			49.9±12.12		
relationship with peer*	very good[a]	15.6±12.55	9.19	**<.001**	64.3± 8.06	30.26	**<.001**
	good[b]	20.5±14.50		**a<c,d**	56.6± 9.17		**a>b,c,d**
	difficult[c]	29.7±15.27		**b<c**	49.2± 9.07		**b<c**
	very difficult[d]	32.8±37.66			48.5±15.50		
the number of good friend*	none[a]	24.5±18.82	1.82	.125	51.8±13.31	4.80	**.001**
	1[b]	21.4±10.59			51.8± 9.45		**e>a,b**
	2[c]	24.9±18.86			56.0± 8.53		
	3[d]	21.7±15.37			58.0± 8.81		
	4 or more[a]	18.7±14.66			59.2±10.33		

* 무응답 제외

각하는 군에 비해 정서・행동문제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초등학생의 적응유연성 정도의 경우는 학업성적 수준(F=24.93, p<.001), 학교생활에 대한 즐거움 정도(F=21.08, p<.001), 또래와의 관계(F=30.26, p<.001), 친한 친구 수(F=4.80, p=.001) 등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학업성적 수준이 상이라고 생각하는 군이 중, 하라고 생각하는 군에 비해, 중이라고 생각하는 군이 하라고 생각하는 군보다 적응유연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학교생활에 대한 즐거움 정도와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하고 아껴준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각각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는 군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에 비해 적응유연성이 높았고, 그렇다 고 생각하는 군이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에 비해 적응유연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친한 친구 수별로는 4명 이상인 군이 없는 군과 1명인 군에 비해 적응유연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9).

5. 대상자의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적응유연성 정도의 차이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따른 적응유연성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정서・행동문제 점수분포에 따라 대상자를 세 개의 동일크기 집단으로 나누는 절단점의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 정도가 하위 1/3 절단점 이하인 군을 '하위군'으로, 상위 1/3 절단점 이상의 군을 '상위군'으로, 그리고 이 두군 사이의 나머지 군을 '중위군'으로 분류하고,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Table 10).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따라서는 적응유연성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0.74 p<.001), 사후검정을 한 결과, 정서・행동문제 하위군이 상위군 보다 적응 유연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6. 대상자의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과의 관계

대상자의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정서・행동문제는 전체 적응유연성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258, p<.001).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의집중(r=-.292, p<.001), 내재화(r=-.218, p<.001), 외현화(r=-.208, p<.001)의 순으로 적응유연성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는 위축행동(r=-.248, p<.001), 불안/우울(r=-.208, p<. 001), 비행(r=-.202, p<.001), 공격행동(r=-.201, p<.001)의 순으로 적응유연성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화 증상(r=-.075, p=.197)은 적응유연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05). 따라서 대상자의 정서・행

<Table 10> Difference of the Resilience by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N=303)

Variable	Category	n	Resilience			
			Mean±SD	F	p	Scheffé test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High[a]	99	54.3± 9.66	10.74	<.001	a<c
	Medium[b]	101	58.1± 9.47			
	Low[c]	103	61.0±10.91			

<Table 11> Correlation among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and resilience (N=303)

Variables	Resilience			
	Total	self-efficacy	relationship	problem solving
	r (*p*)	r (*p*)	r (*p*)	r (*p*)
Total	-.258***	-.270***	-.193**	-.204**
	(<.001)	(<.001)	(.001)	(.001)
External problem	-.208***	-.174**	-.204***	-.165**
aggressive behavior	(<.001)	(.003)	(<.001)	(.005)
delinquent behavior	-.201***	-.176**	-.196**	-.156**
	(<.001)	(.002)	(.001)	(.007)
	-.202***	-.165**	-.190**	-.174**
	(<.001)	(.004)	(.001)	(.003)
Internal problem	-.218***	-.254***	-.138*	-.169**
	(<.001)	(<.001)	(.018)	(.004)
somatic complaints	-.075	-.077	-.024	-.092
anxiety/depression	(.197)	(.186)	(.676)	(.112)
withdrawn	-.208***	-.262***	-.133*	-.137*
	(<.001)	(<.001)	(.021)	(.017)
	-.248***	-.283***	-.168**	-.186**
	(<.001)	(<.001)	(.004)	(.001)
Attention problem	-.292***	-.345***	-.173**	-.233***
	(<.001)	(<.001)	(.003)	(<.001)

*p<.05 **p<.01, ***p<.001

동문제 정도가 낮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Ⅳ. 논 의

초등학생의 정서 · 행동문제는 136점 만점에 평균 20.67점(평균평점 0.31))으로 Lee 등 (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3점 척도의 0.44점과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0.47점(Kwon, Kim, Ahn, & Lee, 2005) 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이 특수한 역경이나 위험 상황에 노출된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초등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하위영역별로는 주의집중문제가 가장 높았고,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순으로 나타나 이는 Lee 등(2009)의 결과와 일치한 반면, 외현화문제보다 내재화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Kwon 등(2005)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남자는 외현화 문제가 여자는 내재화문제가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의 보고(Ahn, et al., 2008)에 비추었을 때 본 연구에서는 남자가 많은 반면, Kwon 등(2005) 연구에서는 여자가 더 많아 대상자의 성별과 지역적인 차이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초등학생의 적응유연성 정도는 76점 만점에 평균 57.43점(평점평균 3.02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영역별로는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대인관계기술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과 Kwon(2008)의 연구에서 정서·행동문제정도에

따라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으로 나누고, 정상군의 적응유연성 점수가 38.28점으로 영역별로 순서는 같은 양상을 보였으나 본 연구의 적응유연성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경제적 여건과 환경적 어려움이 적은 환경에서 생활하므로 더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정서·행동문제 정도는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정서·행동문제수준이 높았고, 반면, 적응유연성은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충동성 및 우울성향이 높거나(Oh, 2004) 여가시간을 혼자 보내거나 친구가 없어서 게임을 하는 경우(Eom, 2002), 그리고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부모와의 관계 및 생활전반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더 높아지게 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므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혼자서 노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 등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하고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차이를 보인 가족관련 특성으로는 부모 및 형제와 관계가 좋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분위기에서는 정서·행동문제가 더 낮고 적응유연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되고 가정 분위기가 좋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된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을 잘하고, 정서·행동문제가 낮다고 보고한 여러 연구들(Moon, 2008; Beak & Hwang, 2006)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해준다. 또한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교관련 특성에서는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정서·행동문제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관계가 좋고,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좋고(Jou, 2008), 사회불안과 우울이 낮으며(Lee,J. H., 2007), 친구관계와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많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들(Bae, 2006; Lee, Kwon & Kim, 2007)과 유사하였다.

초등학생의 적응유연성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et al., 2004; Park,, 2009; Shin & Khu, 2001)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5학년이 6학년보다 적응유연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응유연성이 낮아진다고 한 결과(Kim et al., 2004; Shin & Khu, 2001)와는 유사하였으나, 중·고등학생들 간의 적응유연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한 결과(Park, 2009)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격적인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인지적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동적인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속성이 강하며(Kim & Kwon, 2008), 걸러지지 않은 채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시기로 정해진 규칙이나 어른들의 지시에 순응하지 못하므로 드러나는 문제라고 사료되며,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인지적 및 의지적 적응력이 발달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속에서 대학입시라는 하나의 목표 하에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생활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가 적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 게임중독집단은 비중독집단보다 가족 및 친구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충동통제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져 학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연구(Lee & Chae, 2006)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게임 중독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 발견하여 의사소통 및 자기조절능력 향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적응유연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형편이 좋지 않을수록 가정간의 상호작용과 적응유연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Park, 2009)와도 같다.

적응유연성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가족관련 특성으로, 부모 및 형제와 관계가 좋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거나 대화가 잘 이뤄지는 분위기에서는 적응유연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낮게 나타난 Jang(2002)의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적응유연성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교관련 특성은 학교성적이 좋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며, 또래 관계가 좋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낮았다는 보고(Kim et al., 2004; Park, 2009; Shin & Khu, 2001; Jang, 2002)와 친구수가 많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Jang(2002)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서 성적으로만 평가되고, 지나치게 과도한 경쟁체제의 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 및 인성교육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우리나라 교육 입안자나 정책자들의 교육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며 또한 교육 현장에서 교사, 학부모 및 학생들도 성적만이 아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생활 중심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따라 적응유연성 정도의 차이를 보면, 정서・행동문제 하위군이 상위군보다 적응 유연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의 직접적인 차이를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주로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한 연구에서 화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또래 관계 부적응과 다양한 학교적응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Lee 등(2008)의 결과와 학교생활 태도가 낮을수록 정서・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 Lee(2006)의 결과와도 연관 지어 볼 수 있으며, 또래 관계가 좋고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좋고(Jou, 2008) 친구관계와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았다는 보고(Bae, 2006)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 간에는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격행동, 비행과 같은 외재화 문제나 불안, 우울 및 위축 등의 내재화문제 그리고 주의집중과 같은 정서・행동문제가 클수록 적응유연성 정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연구(Lee, Kweon, & Kim, 2007; Lee, J.H., 2007; Bae, 2006; Jou, 2008)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ADHD증상집단이 비ADHD집단에 비해 부모와 아동 모두 우울감이 높았다고 보고한 Yoo 등(2008)의 연구와 ADHD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책임감과 끈기가 부족하여 학습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보고(Seo, Kim & Kim, 2009)와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잇다. 그리고 정서・행동문제 중 외현화 문제의 공격행동과 내재화 문제의 위축행동이 적응유연성과 더 깊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화를 조절하고 양보 및 타협하는

것이 부족하여 또래 관계 부적응과 다양한 학교적응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결과(Lee, K., Lee, Y., Lee, J. & Lee, S., 2008)와 학교생활태도가 낮을수록 정서·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 결과(Lee, Kim, Choi, & Kweon, 2006)와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또한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서 분노와 적대감으로 진행되며 결국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한 연구(Kim, 2005; Park, 2007)의 결과들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두 변수간의 상관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는 적응유연성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Kim과 Kwon(2008)의 연구와 관련지어 볼 때,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정서·행동문제나 적응유연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인지가 결여된 결과라고 사료되어 초등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는 학생 뿐 아니라 부모, 교사에 의한 보다 객관적인 관찰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적응유연성은 정서·행동문제 같은 단일 항목과 관계보다는 아동이 당면한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 및 조건들을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정서·행동 부적응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은 부모의 직업, 가족동거상태 같은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 및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와 인정 및 이해 등과 같은 심리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정서·행동문제가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발달상 겪게 되는 어려움과 처한 환경에 대한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응유연성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아동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급별 또는 거주 지역에 따른 대상자들의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의 차이에 대해 제한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성별, 거주지역, 학교급별 등에 따른 대단위의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의 실태를 학생 개인의 응답으로만 처리하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학교생활정도나 가정의 여건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교사, 학부모를 통한 조사도 함께 이뤄지길 제언한다.

셋째, 정서·행동문제와 적응유연성 정도에 따른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Achenbach, T.M.(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hn, D. H., Jung, S. A., Kim, S. H., song, W. J., Lee, M. S. (2008). Mental Health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Related Familial-Social Factors in Health Promoting School.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2*1(2), 35-46.

Bae, J. Y.(2006). The Study on Mental Health of Korean Adolescents. *Korean Acad Mental Health Nurs. 15*(3), 308-317.

Beak, H. J., Hwang, H. J. (2006). The effects of parents-related variables and self-related variables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3), 1-27.

Eom, M. K(2002). *Use of Computer Games by Elementary Schoolers and the Relationship of Game Addiction to Mental Health. Major in Nursing.* National University, Taejon.

Hwang, H. J.(2006). A Study on the Stress and Its Relative Effects of Variable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9*(1), 193-216.

Hwang, H. J., Kim, S. J.(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s Behaviour and Stree,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4*(2), 303-317.

Jang, S. J. (2002). *A Relationship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Resilience of Adjustment and Characteristics of Juvenile Delinquency Tendencies.*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Jou, E. S. (2008). *Juvenile mental health state and related factors.* A Graduate School of Busan University.

Kim, E.Y., Oh, K. J.(2006). Pover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1 year follow-up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2), 381-396.

Kim, J. D.(2003). *Resilience of Adolescent Children with Problem Drinking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Graduate National University, Taejon.

Kim, M. A., Kwon, K. J. (2008). A Study On The Emotional Clarity and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f Resilient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6*(1), 15-32.

Kim, M. S. (2005). *A study on examples of emotionally disordered adolescents' maladjustment behavior improvement through problem of art therapy-focusing on initial object-relationship psychology.* major in art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Kim, S. J., Lee, C. S., Chio, B. S.(2004).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Increase of School Resilience for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Community Mental Heath Service Model. *J Korean Acad Mental Health Nurs, 13*(3), 291-303.

Kwon, M. K., Kim H.W., Ahn, H.Y., Lee, J.W. (2005). Children's Perception of Mother's Child-reading Attitudes and Problem Conduct of Children. *J Korean Acad Child Haeth Nurs. 11*(1), 132-141.

Lee, C. S., Kim, S. J., Choi, B. S., & Kweon, Y. R.(2009).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the Emotional-Behavioral Problem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a City.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22(2), 113-124

Lee, C. S., Kim, S. J., Choi, B. S., Kweon, Y. R.(2006).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Emotional-Behavioral Problem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a City. *J Korean Acad Mental Health Nurs, 15*(4), 375-383.

Lee, C. S., Kweon, Y. Ran., Kim S. J.(2007). The Impact of School Bullying Victim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Mental Health Nurs. 16*(1), 32-40.

Lee, J. 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Discord Strategy with the Parents Attachment and Relationship beween Children's Friendship Quality Departmen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Incheon.

Lee, K. A., Lee, Y. M., Lee, J. L., Lee, S. J. (2008). Parents' Perspectives and Needs on School Adaptation and School Based-Intervention about Children with ADHD Attending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 24*(4), 121-147.

Lee, S. J. (2006). Psychological Factor and Academic Resilience on Adolescents Experienced Family Violence. *The Journal of Youth Studies, 13*(1), 137-163.

Lee, Y. K., Chae, K. M.(2006). Relations of Computer Game Addiction and Social Relationship, Adjustment of Adolescen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5*(3), 711-726.

Moon, Y. S.(2008).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Self-Concept and Problem Behavior. *J Korean Acad Child Haeth Nurs*, 14(4), 405-414.

Oh, K. J. (2007). Self Behavior Rating Scale of the Adolescent

Oh, W. O. (2004). Computer Game Addiction and it's Predictors 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Acd Child Health Nurs, 10*(3), 282-290.

Park, J. R.(2009). *Relationship of Adolescents' Resiliencewith the Perception of Adversity and Protective Factors.* Department of Child and Youth Welfare The Graduate School Hanseo University.

Park, Y. A.(2007). *The Effects of anger management program on the aggression and emotional strengths of children at risk for EBD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 J. Y., Kim, J. K., Kim, J. H. (2009). Characteristics of Learning Style of Children with LD, Childrenwith ADHD, and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 25*(3), 311-329.

Shin, H. S. Khu, B. Y.(2001). Stress Coping and Its Relationship to Adjustment in Korean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l9*(1), 189-225.

Shin, J. H. (2008).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and the Environment Variables about the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y. Major in Child Care and Education Dept. of Child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hin, K. M., Shin, Y. M., Kim, S. Y., Cho, S. M. (2010). Brief Report : Early Risk Factors for Adolescent Delinquency: A Six Eight-Year Longitudinal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2), 597-606.

Sung, J. H., Chung, M. J.(2007). School Adjustment and Protective Factors of Scool Violence Victims. *J Korean Acad Child Haeth Nurs. 28*(5), 1-18.

Wie H.(2004).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tree for Adolescents. *J Korean Acad Mental Health Nurs. 4*(2), 129-138.

Yoo, S. K. (2002), Diferences in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Between Male and Female Delinquent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2), 201-217.